

# '택지분양 근무성적 반영' 공무원 위화감 불러

전남도, 광양시 정기종합감사서 부정적 사례 61건 적발  
서면으로만 재정계획심의위 열어 주민 참여 권리 박탈도

광양시가 공무원 업무와 관련이 없는 데도, '근무성적평정' 과정에서 택지 분양 실적을 반영한 실적가점 부여계획을 수립해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한 공무원들이 택지를 구입하는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서면으로만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심의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등 부정적인 행정 처리를 하다 전남도 감사에 적발됐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광양시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모두 61건을 적발해 50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40억3700만원을 추징·감액·회수토록 조치했다.

전남도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최근 3년 간 광양시 분청·직속 기관·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 부적절한 업무 행태를 적발해 시정을 요구했다.

광양시는 우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추진한 '사회적약자 편익지원 공모사업'에 전국 최초로 선정돼 확보한 사업비(국비 6억, 시비 4억)로 배설케어로봇(64대)와 부모사랑호도인형로봇(300개)을 구입, 재가요양원과 요양병원 등에 보급했지만 대부분의 시설에서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 가 거부하거나 요양보호사가 업무가 많으며 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등 취지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또 지난 2017년 5월 당시 개발중인 광영·의암, 외우지구 택지분양 촉진을 위해 '택지분양 인센티브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시 0.5~2.0점까지 실적 가점을 부여하기로 직원들에게 공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광양시의 경우 직원 반발 등으로 실제 가점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본인의 택지 자가매입 실적까지 가점 인정을 해 승진이 임박한 공무원들이 직접 택지 구입에 나서는 등 위화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켰고 그릇된 인사문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아 도지사 표창 수여 자격이 없는 직원을 대상으로 추천하는가 하면, 사망자에게 자동차의 무보험 미가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허술한 행정 처분을 한 사실도

적발됐다.

지역민 알권리를 침해한 행정 행위도 적발됐다. 광양시는 최근 3년(2016년 1월~2019년 7월)간 525건에 달한 수의계약 내역을 미공개, 계약 사무의 투명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지방재정법에 따라 16종류의 재정 정보를 공시하기 위해 대면으로 개최해야 하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4년 간 서면으로 대체하는 등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지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했다는 게 전남도 감사 결과다.

광양시는 아울러 10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면서도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수급권이 없거나 연금액이 달린 8명에게 370만원 상당의 기초연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 이용섭 광주시장 직무수행 평가 1위

한국갤럽, 시도지사 조사  
김영록 전남지사 2위

이용섭 광주시장이 민선7기 2019년 하반기(7~12월)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에서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중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갤럽이 지난해 하반기 민선7기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용섭 광주시장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68%로,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도를 얻었다. 이어 2위는 김영록 전남지사(65%), 3위는 이시종 충북지사(62%), 4위는 최문순 강원지사(56%), 5위는 송하진 전북지사(55%) 순이다. 최하위인 16위는 오거돈 부산시장(36%)이다. 세종시는 사례 수가 적어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 시장은 상반기(1~6월)에는 63%로, 김영록 전남지사(65%)보다 2%포인트

낮아 2위였으나 하반기에 5%포인트 올라 1위를 탈환했다. 지난해 하반기 들어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착공되고 광주형일자리 첫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 건설이 들어가는 등 해법은 현안들이 속속 해결되면서 직무수행 지지도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여론조사는 2019년 7~12월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2만3069명(17개 시도별 최대 5760명, 최소 117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를 통해 진행했으며 응답률은 15%를 기록했다.

표본오차는 17개 시도별 95% 신뢰수준에 ±1.3~9.1%포인트다. 표본추출은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집전화 RDD 15% 포함)에서 2019년 7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셀가중)를 할당해 무작위 추출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홈페이지(www.gallup.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전남 한우브랜드 역시 전국 최고

지리산순한우 3년 연속 명품  
축산물 브랜드 경진 수상 휩쓸어

전남 한우브랜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2019년 대한민국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에서 수상을 휩쓸며 다시 한 번 전국 최고임을 입증했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경진에서 '지리산순한우'가 최고의 영예인 '명품인증'을 3년 연속 획득한 것을 비롯해 '녹색한우'가 최우수상, '함평천지한우'가 장려상을 받았다.

대한민국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는 (사)소비자시민모임으로부터 우수 축산물 브랜드로 인증받은 경제 가운데 축산물

의 생산에서 도축·가공·유통·판매까지 전 단계에 걸쳐 브랜드 관리가 우수한 경영체를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세부 항목별 심사를 벌여 시상하고 있다.

녹색한우는 목포, 무안 등 서부권 12개 시군 4200여 농가가 참여한 브랜드다. 지난해 이어 5회째 수상 쾌거를 이뤘고, 함평천지한우는 함평지역 단일브랜드로 113농가로 구성된 HACCP 통합인증을 획득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앞으로 전국 최초 한우 송아지브랜드인 '전남 으뜸송아지'를 내실 있게 추진해 전남 한우가 전국 최고 자리를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캘리그래피 새해 소망 써주기 6일 광주시 북구 운암도서관 로비에서 열린 신년 특별 기획 프로그램 '캘리그래피 새해 소망 써주기' 행사에서 강현희 캘리그래피 강사가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예쁜 글씨로 새해 소망을 써주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섬 주민이 직접 관광 안내 '섬 코디네이터' 인기

전남도 '가고 싶은 섬' 주민 16명 활동...비경·토속음식 등 상품화

전남도가 전남의 섬을 찾는 관광객들을 주민 가운데 선정된 '섬 코디네이터'가 직접 안내하도록 해 인기를 끌고 있다.

전남도는 6일 "전남의 '가고 싶은 섬' 방문객이 섬을 제대로 즐길 수 있도록 주민이 직접 관광프로그램을 디자인해 안내하는 '섬 코디네이터'를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섬 관광은 지역적 특성상 관광객들이

교통과 숙박 등에 구체적인 정보를 사전에 취득하기 어려워 돌레길 트래킹, 등산, 낚시 등으로 프로그램이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짧은 기간 섬을 찾는 관광객들은 숨겨진 비경, 삶의 방식, 토속음식 등 전남 섬의 숨겨진 이면을 찾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섬 주민이 주도해 관광 상품을 만들고 직접 관광객들에게

해설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섬 코디네이터를 양성하고 있다. 전남도가 지난 2015년부터 선정하고 있는 '가고 싶은 섬'을 대상으로 주민이 자신이 살고 있는 섬에 대한 관광프로그램을 만들고 방문객에게 해설하는 역량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가고 싶은 섬'은 2015년 여수·남도도와 고흥·연흥도, 강진·가우도, 완도·소안도, 진도·관매도, 신안·반월박지도 6개 섬을 시작으로 2020년 영광·안마도, 신안·선도 등 현재 16개 섬이 선정돼 사업이 추진되

고 있다.

주민 교육은 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강사진이 섬을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조사하고 교육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1차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섬별 스토리 발굴, 관광프로그램 개발 중심 교육, 2차 섬 코디네이터로 활동 가능한 주민을 대상으로 섬 해설 시나리오 작성, 현장 적용 교육, 해설 시연 등에 나서 현재 14개 섬의 49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현재 면접 심사를 거쳐 섬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받은 섬 주민은 모두 16명이다.자격증이 발급된 섬별 코디네이터에 대해서는 활동수당도 지원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설 앞두고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전통시장·공연장 등 138곳

전남도는 설을 앞두고 7일부터 20일까지 다중이용시설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안전점검 대상은 전통시장, 대형마트, 종합여객시설, 공연장 등 도에서 관리하는 주요 138개 다중이용시설이다.

이번 점검은 설을 맞아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 시·군,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자문단(건축·전기), 관리주체 등과 민·관 합동으로 실시한다.

소방·전기·가스시설의 안전성 및 관리실태 등을 확인하고, 비상구·복도·계단·승강기 등 피난통로 상시 확보 여부, 시설안전기준 등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가벼운 위험요인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즉시 시정이 어려운 사항은 별도 보수·정비한다.

과다 예산 소요 등으로 지정 기간 내 정비가 곤란한 시설은 우선 응급조치 후 위험요인 해소 시까지 추후 관리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ESS시공전문기업

#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